현장과 시각

민주당, 정신 못 차렸다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통합민주당 7·6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당의 화합과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최대의 행사다. 그러나 당 내외 분위기는 썰렁하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쇠고기 정국의 영향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근 한국 선거의 트랜드로 정착한 '국민 참여'가 원천 배제된 점을 들 수 있다. 경선은 지역위원장이 선임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들 만으로 치러진다. '그들만의 리그'다.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후보보다는 지역위원장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유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각 계파 간의 기득권 나누기인 '합종연횡'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초선의원들과 중립 성향 의원들은 정치적 소신보다는 계파 간의 밀약이나 '대세론'을 살피며 동승하려는 움직임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한나라당까지도 4일 치러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선출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했다"며 "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보수·우익정당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386 의원'들의 기득권화도 민주당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특정 후보를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대,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7대 국회를 지나면서 386 의원들은 당내 기득권층이 됐다"며 "일부 386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읽지 못하고 설치고 있어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더욱 실망스런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지역 인사들의 무기력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일부 광주·전남 3선 의원들은 도전보다는 안주를 택했고 초·재선 의원들은 민주당 내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보다는 특정 후보 줄서기에 나서거나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새로이 거듭나기 위한 용광로가 돼야 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처럼 계파 간의 밥그릇 싸움과 기득권 다툼의 장으로 탈색되면서 정가에서 떠돌고 있는 한나라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는 더욱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tuim@kwangju.co.kr

"감개무량… 한국 국력신장 최선"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19개월만에 방한, 4박 5일 일정 돌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일 취임 후 1년 7개월만에 처음으로 방한했다.

반 총장은 이날 오후 1시2분께 특별기편으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4박 5일 간의 방한 일정에 들어갔다. 반 총장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한 뒤 비행기 트랩을 걸어내려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한승수 국무총리 내외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는 "작년 1월 취임후 18개월만에 정든 고국을 찾아와 국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개무량하다"고 방한 소감을 전한 뒤 "좀 더 일찍 찾아와 국민들께 인사드렸어야 했지만 지난 1년간 시급한 국제문제를 처리하느라 늦어져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의 국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식량난, 고유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는 국력신장과 상응하는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초청으로 방한한 반 총장은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무총리와의 면담,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 통일부 장관과의 조찬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반 총장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 개발협력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엔 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수단 다르푸르 등 분쟁지역 상황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치고 있는 동명부대에 파견될 장병 및 우주인 이소연씨와의 만남,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및 유엔 한국협회 주최 리셉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4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또 외교장관과의 회담, 한승수 국무총리 면담, 내외신 회견 등도 예정돼 있다.

반 총장은 5일에는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 청주대에서 열리는 모의유엔총회에 참석하고 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조찬을 함께한 뒤 7일 오전 일본으로 건너가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 우주인 유엔기 전달 행사'에 참석, 이소연씨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가지고 갔던 유엔기를 전달받았다. 이 유엔기는 이씨가 지난 4월 우주비행 때 ISS에 가져가 한국과 유엔 간의 우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한 뒤 지구로 되가져온 것이다. /연합뉴스

김석원 前 쌍용회장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3일 계열사에 1천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징역2년6월, 횡령죄로 1년6월 등 두 개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명호근, 홍사승 전·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각각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침술은 우리 것"…한·중 국제표준 마찰

한국의 침구 경혈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됐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홍콩 문회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침구경혈 부위 국제표준'을 제정한 것을 두고 침술을 '한국의 것'으로 삼으려는 한의학계 주장에 중국 중의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고 3일 전했다.

논란은 WHO가 3년 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361개 침구경혈 위치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최근 국제표준서를 발간한데서 비롯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고 WHO가 공인한 361개 경혈 위치 가운데 99%에 가까운 357개가 한의학의 혈자리를 따른 것이라며 한의학의 안전성과 신뢰도, 호환성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361개 혈자리 가운데 359개가 중국의 방안을 채용한 것이라며 한국이 근거없이 사실을 왜곡, 또다른 문화침탈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은 지난 2005년 4월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두차례 학술회의를 갖고 361개 혈자리 가운데 355개 부위를 확정했을 때 이 부위는 모두 중국의 방안을 채용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견이 있었던 6개 부위 가운데 4개는 투표를 통해 중국의 방안을 채택하고, 나머지 수구혈(水溝穴) 등 2개 부위는 한국, 일본의 주장을 1안으로, 중국의 주장을 2안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중국측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2002년 2월 콜롬비아 대선 유세 도중 반군에게 납치됐던 잉그리드 베탕쿠르(오른쪽) 전 대선후보가 피랍된 지 6년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뒤 2일 수도 보고타의 군사기지에서 어머니 욜란다로부터 키스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콜롬비아 前 대선후보 잉그리드 베탕쿠르

반군 피랍 6년만에 극적 구출

좌익게릴라 조직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6년여 동안 인질로 붙잡혀 있던 잉그리드 베탕쿠르(46) 전 콜롬비아 대통령 후보와 미국 국적의 민간인 3명, 콜롬비아 군·경을 포함한 15명이 2일(현지시각) 콜롬비아 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됐다.

콜롬비아 군이 국제적 관심을 끌어온 인질들을 총알 한 방도 쏘지 않고 구출함으로써 반군과의 비타협 정책을 고수해온 알바로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정부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는 반면 창설자 마누엘 마루란다 사망 후 응집력이 급격히 약해진 FARC는 창설 44년만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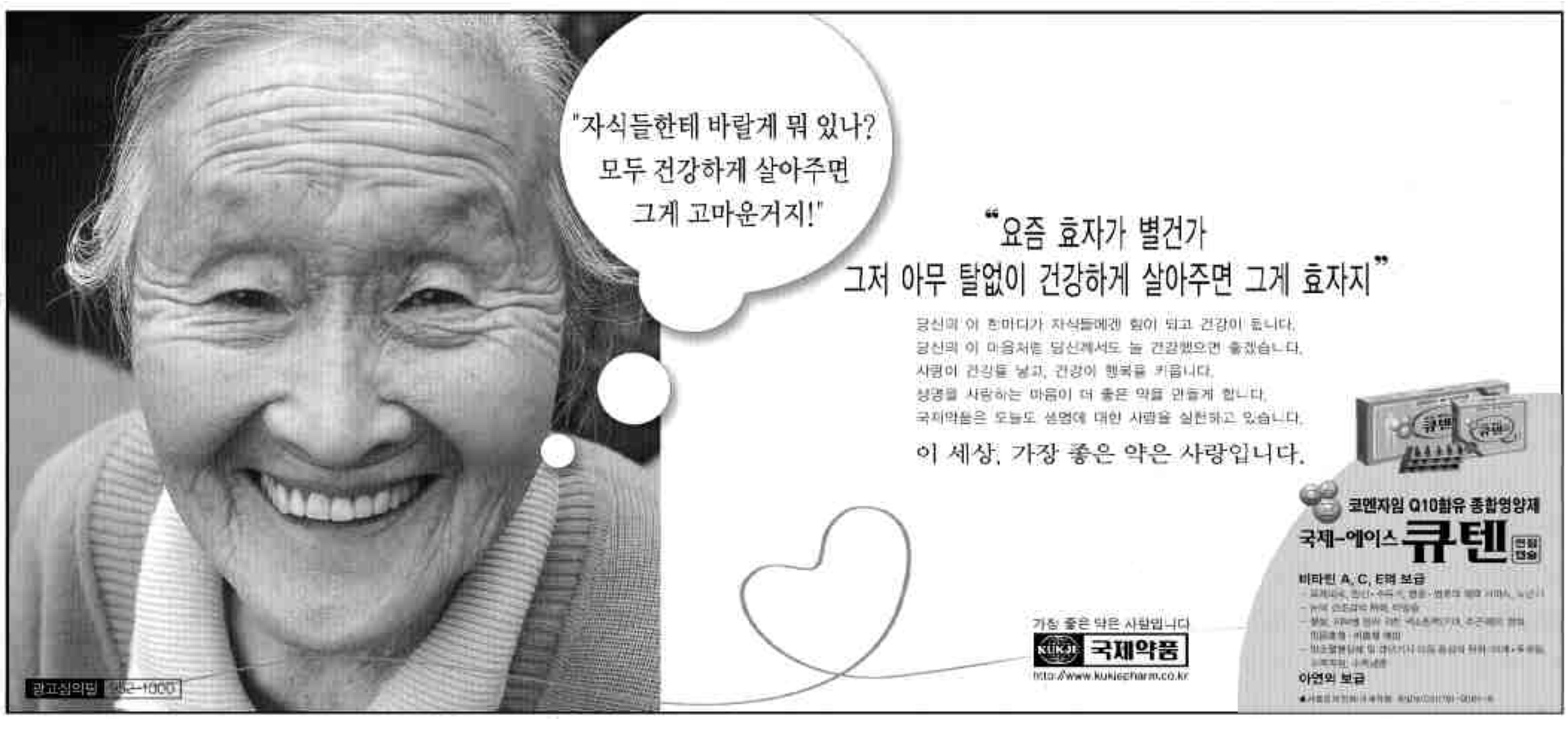
콜롬비아와 프랑스 이중 국적자로 지난 2002년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지역 유세에 나섰다가 반군에 납치됐던 베탕쿠르는 이날 수도 보고타 인근의 카탐 군 기지에 도착,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친 요란다 풀레시오에 이어 남편 후안 카를로스 르콤프와 오랫동안 감격의 포옹을 했다.

베탕쿠르는 공항에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구출작전이 대담하고 완벽했다"고 찬사를 보내며 콜롬비아와 프랑스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베탕쿠르는 이어 "이번 구출을 콜롬비아 평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또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자신의 'FARC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콜롬비아에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오는 2010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부시 "北 핵 신고 내용 아직 회의적"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개발계획 신고와 관련, 북한이 신고내용을 검증하는데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NHK 방송이 3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NHK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신고와 냉각탑 폭파를 환영하면서 "그러나 본인은 아직 회의적이다. '증명으로 보여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신고 내용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해 "45일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력적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NHK는 전했다.

오는 7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NHK와 인터뷰를 가진 부시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답은 그렇지 않다. 6자회담은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6자회담을 통해 납치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연합뉴스